



# RANKING DIGITAL RIGHTS

## 2019 RDR 기업책임지수

2019 디지털 권리 순위(Ranking Digital Rights, RDR) 기업책임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24개의 인터넷, 모바일 및 통신 기업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해당 기업이 공개하고 있는 공약 및 정책을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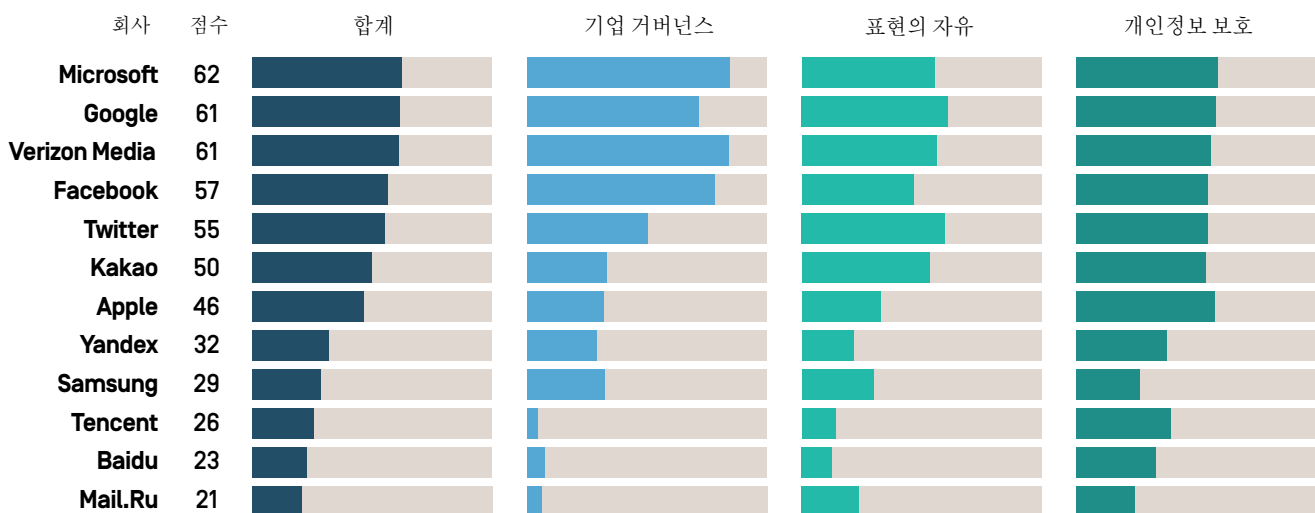


# 2019 RDR 기업책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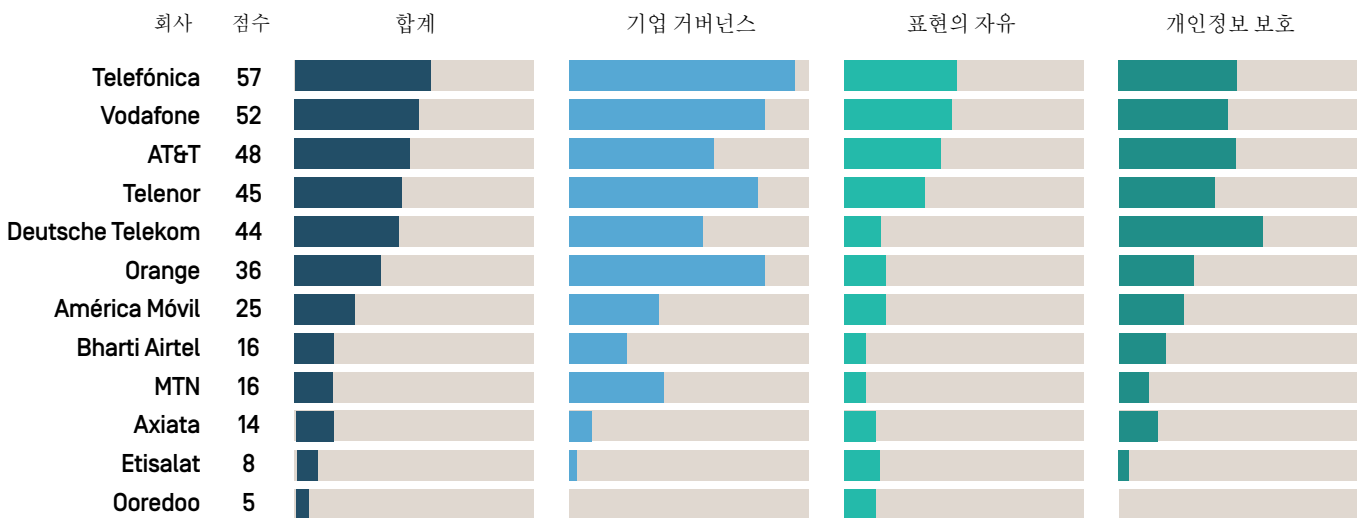
2019 디지털 권리 순위 (Ranking Digital Rights, RDR) 기업책임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24개의 인터넷, 모바일 및 통신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공개하고 있는 공약, 정책 및 관행 중 거버넌스, 책임체제 등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별 총 35개의 지표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 대상 기업들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전 세계 43억 명의 인터넷 이용자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총 시가 총액은 약 5조 달러에 육박한다.

디지털 권리 순위(Ranking Digital Rights)는 뉴아메리카 재단 산하 오픈 테크놀로지 연구원의 비영리 연구 프로젝트이다. 이번 기업책임지수는 2015년 11월, 2017년 3월, 2018년 4월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되었다. 2019년 기업책임지수 평가서 전체 데이터 및 분석 결과, 각 기업 평가 보고서, 미가공 데이터 세트는 [rankingdigitalrights.org/index2019](https://rankingdigitalrights.org/index20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인터넷·모바일 기업



## ● 통신 회사



# 주요 발견사항

대부분의 기업이 개선 조치를 취했으나 인터넷이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지지하고 보장하게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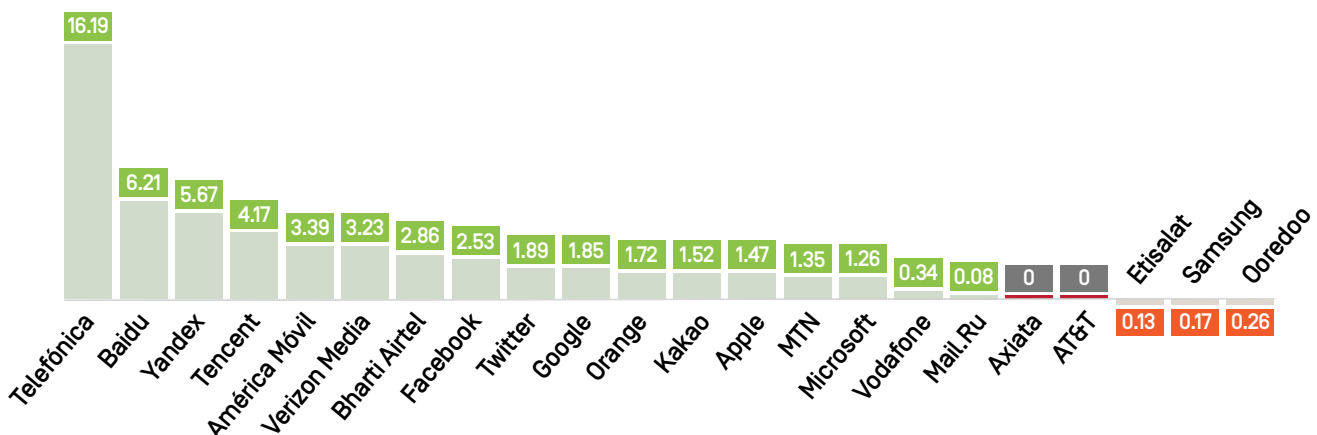
2019년 기업책임지수는 24개 기업을 평가하였다. 2018년 기업책임지수의 평가 대상이었던 22개 기업 중 올해 새로운 선두 기업들을 포함한 19 개가 1년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1. 올해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강력한 거버넌스 및 모든 서비스의 일관된 정책 적용을 높이 평가 받아 기업책임지수가 첫 발간된 2015년부터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격차가 좁혀지고 있었던 구글[Google]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구글은 버라이즌 미디어[Verizon Media], 구 오스, 야후)와 함께 종합 2위에 머물렀다.
2. 텔레포니카[Telefónica]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과 관행을 다른 이동통신사보다 훨씬 많이 공개하며 선두에 나섰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소재하며 유럽 및 남미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다국적 기업은 평가 대상 기업들 중 가장 많은 개선을 실천하기도 했다. 2018년 이동통신사 중 1위를 차지했던 보다폰[Vodafone]은 2위로, 2위를 기록했던 AT&T는 3위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알 권리가 있고, 기업들은 알릴 의무가 있다.

지난 1년간 더 많은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기로 약속했고,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관리 감독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EU 등에서 시행된 새로운 규정도 많은 기업들이 이용자 정보 처리에 대한 공시를 개선하도록 이끌었다. 하지만 2019년 기업책임지수에서 50% 이상의 점수를 기록한 기업은 매우 적다. 기업들이 공약, 정책, 관행에 대한 RDR의 공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리스크에 노출된다.

전년 대비 점수 변화(2018-2019)



1. **개인정보 보호:** 대부분의 기업은 여전히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양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U 등에서 시행된 새로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그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2. **기업 거버넌스:** 기업은 사업 모델 및 신기술 구현이 이용자에게 어떤 위험을 가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기업은 타깃 광고나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또한 이용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불만 처리 및 권리 구제 절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3. **표현의 자유:** 인터넷 상의 표현 감시에 대한 투명성은 여전히 불충분하다. 기업들은 혐오표현과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기업의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통해 누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지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투명성의 부족은 정부 및 기업 등에 의한 검열과 조작의 위험을 가중시킨다.
4. **정부의 요청:** 정부의 요청에 대한 기업들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기업들은 정부가 요청하는 이용자 정보 접근 및 표현 제한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의 검열과 감시 권한이 남용을 방지하거나 공적 책임을 유지시키기 위한 감독을 받지 않는다.

# 기업에 대한 권고사항

본 기업책임지수의 평가 대상 기업들은 법적·정책적 개혁 없이도 즉각적인 변화를 단행할 수 있다.

- 1. 법적 준수를 넘어서 인권 증진:** 법령만으로는 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인권으로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한 기업에 대해서 RDR 기업책임지수의 지표는 그들이 따라야 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 2. 투명성 제고:** 기업은 이용자의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제한되거나 조작되는지, 누가 어떤 권한으로 그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3. 감독 및 실사의 진지한 이행:** 기업의 사업이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기업이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극대화하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와 감독 및 종합적 실사 구조가 필요하다.
- 4. 효과적인 불만 처리 및 권리 구제 절차 제공:** 이용자는 기업의 플랫폼 및 서비스, 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에 대한 피해를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 5. 데이터 및 표현에 대한 더 나은 거버넌스를 위한 혁신:** 기업은 시민사회 및 투자자, 정부와 협력하여 개인 및 사회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며 동시에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고안해야 한다.

#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기업들이 인권을 온전히 존중해야 한다면, 정부는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시민들은 정부의 인터넷 상의 표현과 개인 정보에 대한 권한 행사 방식에 대해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 1. 인권 기준 옹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또한 폭력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과 모든 주체의 개인 정보 수집 및 공유는 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용이하게 하거나 강요하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적법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비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 2. 강력한 감독에 대한 약속:**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제대로 감독하여 검열과 감시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감독 기관이 없으면, 민간 플랫폼 및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유해하거나 악의적인 활동을 다루거나, 그 외의 사회적, 경제적, 보안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대중과 산업계의 불신에 시달리게 된다.
- 3. 투명성 구현 및 요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요청의 성격 및 양, 목적 등에 대한 정기적이고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 4. 강력한 기업 거버넌스 요구:** 기업들이 이사회와 감독, 체계적인 내·외부 보고, 그리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잠재적 인권 피해를 식별·평가·완화하기 위한 영향 평가를 시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 5. 권리 구제 절차 보장:** 사람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법적 대응 등 의미있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효율적인 불만 처리 및 권리 구제 절차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